

음식 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 실태와 일자리 비전*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

김 영 아**

이 글에서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음식 배달대행 배달원 311명을 대상으로 근로 실태, 직업력, 만족도 등에 관해 이루어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배달원이 이용하는 배달대행프로그램사의 수수료에 지역 격차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중개수수료 표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특례'에 따른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배달원의 비중은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배달원의 인지 정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 적용 자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배달원에게는 배달 일자리가 징검다리 일자리로 기능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 배달원에게는 생애 주된 일자리와 경력에 도움 되는 일자리로 기능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지역 노동시장 및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범위에서 배달원에 대한 경력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 머리말

배달대행 앱을 활용하는 음식 배달원은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이다. 플랫폼을 바탕으로 위탁 계약을 맺고 배달 일을 하기 때문에 음식점에 직접 고용되어 일하는 배달원과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직접 고용 배달원이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4대 보험에서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이들은 업무상 사고 위험이 크기에 산재보험을 통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배달앱이 확산됨에 따라 이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의 배달대행 배달원에 관한 연구들은 배달원의 업무 특성, 사고의 위험, 수수료, 업무 강도

* 이 글은 김영아 · 고영우 · 방도형(2020), 『배달앱 사용 확산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음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의 제1장 및 제2장 내용의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youngakim@kli.re.kr).

등 근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김종진 외, 2015; 김재민, 2017; 정흥준 외, 2019). 이렇게 파악된 근로 실태는 배달대행 배달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배달대행 배달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태조사들은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수도권 지역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비수도권 배달원들의 실태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배달대행업 연구에서 지역별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독점화된 주문중개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사용하여 지역별 차이가 적은 주문중개앱과 달리 배달대행앱에는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대형 배달대행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에서 개발돼 사용되는 배달대행프로그램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 배달대행앱이라도 지역의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원과 위탁계약을 맺기도 하기에 다른 지역과 같은 배달대행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특성에 따라 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 실태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 개인의 측면에서 배달대행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다. 배달대행 배달원은 남성이 주를 이루며, 상대적으로 청년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찬임 외, 2016; 김종진 외, 2015; 김영아·이승호, 2019). 음식 배달원에게 플랫폼 배달앱 활용 일자리는 생계를 목적으로 한 일자리인가? 그렇다면 이는 다른 일자리로 이행하기 전의 징검다리 일자리인가, 아니면 생애 주된 일자리인가? 우리나라는 고용 기회에 따른 인구이동이 활발하여 지역 간 인적자본의 불평등이 심하다(김우영, 2014). 특히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강동우, 2018). 이는 각 지역의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플랫폼 노동의 기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청년층이 진입할 임금근로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서 플랫폼 이용 배달원 일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전의 실직 상태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일자리로 기능할 수 있다. 즉, 배달대행 배달원이 플랫폼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각 지역의 노동시장 환경에 따라 배달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배달앱 정착 정도에 따라 배달대행 배달원 일자리를 생애 주된 일자리로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20년 서울 및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서 음식 배달대행앱을 이용하여 배달 일을 하는 배달원 311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배달원의 특성과 근로 실태, 그리고 배달원의 직업력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도출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음식 배달대행업 구조

한국의 음식 배달앱 시장은 ‘음식 주문중개앱’과 ‘배달대행앱’이 분리된 특징이 있다. 음식 주문중개앱은 앱을 통해 고객의 주문을 받고 이를 해당 음식점에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한다. 배달대행앱은 음식점과 배달원 간의 배달 업무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배달앱 활용 배달원을 지칭할 때 의미하는 배달앱이 배달대행앱이다. 2019년 10월 현재 음식 주문중개앱 시장에서는 A, B, C 3사가 전체 주문중개앱 총 주문량의 80%를 차지한다. 음식 배달대행앱 시장의 경우 W, X, Y, Z사가 전체 배달량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배달대행앱의 운영 형태는 7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표 1 참조). 유형별로 배달원 계약 방식에 차이가 있다. ‘유형 ①’은 대형 배달대행프로그램사가 주문중개와 배달대행을 하나의 서비스(one-service)로 직접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배달원들은 배달대행프로그램사와 직접 위탁계약을 맺어 배달서비스를 수행한다. ‘유형 ②’는 배달대행프로그램사가 직영 지점으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기도 하면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배달대행업체에는 사용료를 받고 배달대행프로그램만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을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이다. 전자의 경우 배달원은 배달대행프로그램사의 직영 지점 배달대행업체와 직접 배달위탁계약을 맺고 배달업무를 수행한다. 후자의 경우, 배달원은 배달대행프로그램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위탁계약을 맺는다. ‘유형 ③’은 배달대행프로그램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전국 지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다. 배달원은 배달대행프로그램사와 직접 배달위탁계약을 맺는다. ‘유형 ④’는 배달대행프로그램사가 직접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배달대행업체에 제공하는 형태이다.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대행프로그램사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낸다. 배달원은 배달대행프로그램과 사용 계약을 맺은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위탁계약을 맺는다. ‘유형 ⑤’는 ‘유형 ④’를 여러 개로 묶은 형태로, 배달대행프로그램사들의 연합이다. 배달원은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는다. ‘유형 ⑥’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독립된 하나의 음식 배달대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음식 배달대행업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배달원은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유형 ⑦’은 ‘유형 ⑥’의 지역화된 배달대행업체 간에 협력관계를 맺는 구조이다. 배달원은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는다.

음식 배달대행앱의 수익구조를 보면, 음식점 자영업자는 배달대행업체에 가맹비를 내고 배달 건당 수수료를 지불한다. 배달대행 배달원은 음식점 자영업자가 배달대행업체에 지불한 건당 배달비를 수령하고, 그중의 일부를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로 낸다.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 자영업자에게 받는 가맹비와 배달원에게 받는 건당 수수료가 수익이 된다. 배달대행프로그램사는

〈표 1〉 음식 배달대행업의 운영 형태와 배달원 계약 방식

운영 형태		배달원 계약 방식
유형 구분	특징	
① 배달대행프로그램사가 주문중개+ 배달대행 직접 운영	- 하나의 서비스로 중개부터 배달까지 제공	- 프로그램사와 배달원 직접 배달위탁계약
② 배달대행프로그램사가 배달대행 업체 직접 운영 및 프랜차이즈화	- 프로그램사가 직영 지점으로 배달대행업체 운영	- 프로그램사와 배달원 직접 배달위탁계약
	- 배달대행업체에 프로그램만 제공(프랜차이즈 방식)	- 프로그램사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위탁계약,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원과 배달위탁계약
③ 배달대행프로그램사가 법인으로 전국 배달대행업체 직접 운영	- 프로그램사가 전국 지점으로 직접 배달대행업체 운영	- 프로그램사와 배달원 직접 배달위탁계약
④ 배달대행프로그램사가 배달대행 업체에 프로그램만 제공	- 프로그램사는 배달대행업체에 프로그램만 제공	- 프로그램사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프로그램 사용 계약,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원과 배달위탁계약
⑤ ‘유형 ④’의 연합체	- 프로그램사는 협약한 배달대행프로그램사 간 콜 공유	- ‘유형 ④’와 동일
⑥ 지역에서 개발된 배달대행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배달대행업체 운영	- 독립 프로그램을 특정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제공(판매)	- 지역화된 프로그램사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프로그램 판매,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원과 배달위탁계약
⑦ ‘유형 ⑥’ 간의 협력관계	- 독립 프로그램을 특정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제공(판매) - 이들 지역화된 배달대행업체 간에 협력관계 형성	- ‘유형 ⑥’과 동일

자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부 회의 자료와 근로복지공단 음식배달 산업구조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배달대행업체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는다. 이는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원이 낸 수수료에서 배달대행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프로그램사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때 수수료와 프로그램 사용료는 각기 다르며, 배달 건당 수수료 기준도 상이하다.

이와 같은 배달대행업의 구조는 지역화된 배달대행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역적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타 지역과 동일한 대형 배달대행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특성에 따라 배달원의 노동 실태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III. 음식 배달대행 배달원의 특성과 근로 실태

본고에서는 음식 배달대행업 배달원의 근로 실태와 직업력 정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9년에 조사된 ‘음식 배달대행업 배달원의 노동실태 조사(김영아·이승호, 2019)’의 배달원

315명을 추적 조사하였다. 2019년 조사 시 응답한 배달원을 추적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신규 조사자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 2020년 7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2019년 조사에 응답한 배달대행 배달원 315명에 대한 추적 조사와 함께 2020년 현재 배달대행앱으로 배달 일을 하는 배달원을 신규 조사자로 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2019년 조사 응답자 315명 중 67명(21.3%)이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응답자들은 ‘결번’(26.4%), ‘거절’(24.8%), ‘부재중’(12.4%), ‘회피성 거절’(11.3%), ‘응답 중단’(3.8%)의 이유로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신규 조사자 254명이 추가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과 2020년에 모두 응답한 67명과 함께 총 321명(현재 배달 일을 관둔 10명 포함)이 최종 응답자이다. 이 글의 내용은 2020년 현재 배달대행앱을 이용하여 배달 일을 하는 배달원 311명에 대한 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¹⁾

1. 배달원의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현재 배달대행앱을 활용하여 배달 일을 하는 배달원 311명은 주로 남성(99%)이며, 연령대는 20대가 44.3%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30대 27.0%, 40대 22.5%, 10대가 6.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조사 대상의 다수는 고졸 이하(63.3%)로 나타났으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인 배달원도 17.3%를 차지하여 고학력자 배달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배달원 학력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수도권 배달대행 배달원의 76.4%는 고졸 이하이고 비수도권 배달원은 이보다 낮은 56.9%로 나타나 비수도권 배달원의 고학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였다.

졸업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출신 지역을 살펴보았을 때, 서울 지역 배달원의 약 25%가 다른 지역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6대 광역시의 배달원은 대다수가 자신이 일하는 지역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지역이동을 했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현재 지역에서 배달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위한 지역 간 이동에서 수도권 유입이 가장 빈번한 현실이 배달대행 배달원 일자리에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노동시장 경력 특성

〈표 2〉에서 현재의 배달대행 배달 일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가

1)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영아·고영우·방도형(2020) 참조.

〈표 2〉 총 일자리 수 및 노동시장 경력

(단위: 개, 개월)

		총 일자리 수		t/F-test	노동시장 경력		t/F-test
		평균	SD		평균	SD	
전체(311명)		2.1	0.8		88.0	87.8	
주업 여부	주업	2.2	0.8	t=3.62***	101.9	91.9	t=3.19***
	아르바이트 및 부업	1.8	0.8		70.3	79.0	
지역	비수도권	1.9	0.8	t=-2.12*	82.5	86.3	t=-1.56
	수도권	2.2	0.7		99.1	90.0	

주: * p<.05, ** p<.01 *** p<.001.

졌던 총 일자리(시간제 및 전일제 포함)를 살펴보면, 평균 2.1개(최소 1개, 최대 5개)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 일한 총 경력 연수는 평균 88개월(7.3년)로 나타났다. 현재 배달대행 배달원 일이 주업인지 여부에 따라 노동시장 경력은 차이를 보였다. 주업인 경우에는 총 2.2개의 일자리를 가진 반면, 아르바이트 및 부업인 경우에는 이보다 다소 작은 1.8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업인 경우, 총 경력 연수 또한 평균 101.9개월로 아르바이트 및 부업으로 일하는 배달원의 평균 70.3개월보다 2년 6개월 정도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거주 배달원은 평균 1.9개의 일자리를 가졌고 수도권 거주 배달원은 이보다 많은 2.2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배달대행 배달원이 ‘현재까지 가졌던 일자리 중 가장 오랜 기간 일한 대표 일자리’의 직종은 서비스종사자가 5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기능 및 조립종사자 13.8%, 관리 및 사무직종사자 9.0%, 판매종사자 8%,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배달원 7.7%, 단순노무자 및 기타가 3.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배달원 다수가 서비스종사자로 일하였지만 직접 고용된 배달원으로 일하다가 현재 배달대행 배달 일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주업으로 배달대행 배달 일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 배달원 경력의 비중이 아르바이트 및 부업보다 2배 높은 반면, 서비스종사자의 비중은 아르바이트 및 부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업 여부에 따라 대표적 일자리 직종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서 대표적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업 배달대행 배달원인 경우, 대표적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39.1%, 상용직이 37.9%로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및 부업인 경우 대표적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던 경우가 5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업 배달원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중이 비수도권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상용직과 임시직 비중도 비수도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 대표적 일자리(현재까지 가졌던 일자리 중 가장 오랜 기간 일한 일자리)의 직종

(단위 : %)

		직 종						검정통계량
		직접고용 배달원	관리 및 전문가/ 사무종사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	기능/ 조립종사	단순노무자 및 기타	
전체(311명)		7.7	9.0	57.9	8.0	13.8	3.5	
주업 여부	주업	10.3	9.8	50.6	8.1	18.4	2.9	$\chi^2=13.87^*$
	아르바이트 및 부업	4.4	8.0	67.2	8.0	8.0	4.4	
지역	비수도권	8.6	10.5	55.0	8.1	14.4	3.4	$\chi^2=3.39$
	수도권	5.9	5.9	63.7	7.8	12.8	3.9	

주 : * p<.05, ** p<.01 *** p<.001.

〈표 4〉 대표적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단위 : %)

		종사상 지위					검정통계량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전체(311명)		30.9	10.6	8.0	4.8	45.7	
주업 여부	주업	37.9	10.9	8.6	3.5	39.1	$\chi^2=11.87^*$
	아르바이트 및 부업	21.9	10.2	7.3	6.6	54.0	
지역	비수도권	30.1	9.6	10.5	6.2	43.5	$\chi^2=8.87^*$
	수도권	32.4	12.8	2.9	2.0	50.0	

주 : * p<.05, ** p<.01 *** p<.001.

2. 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 실태

가. 주업 여부²⁾ 및 근로시간

전체 응답자의 55.9%가 배달대행 배달 일을 생계를 위한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32.4%, 부업인 경우가 11.5%로 확인되었다.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주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아르바이트 비중은 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현재 배달대행 배달 일자리에에서의 근속 기간은 평균 2.2년으로 주업인 경우 평균 2.4년, 아르바이트는 1.8년, 부업인 경우 2.1년으로 나타났다.

- 2)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배달대행 배달원 일의 주업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생계를 위한 주된 일자리인 경우를 주업으로, 주업이 따로 있으며 부업인 경우를 부업으로, 부업이 아니지만 잠시 거쳐 가는 경우를 아르바이트로 구분하였다.

〈표 5〉 지역별 주업 여부

(단위: %)

		주업 비중			검정통계량
		주업	아르바이트	부업	
전체(311명)		55.9	32.4	11.5	$\chi^2=4.44$
지역	수도권	50.9	40.2	8.8	
	비수도권	58.3	28.7	12.9	

주: * p<.05, ** p<.01 *** p<.001.

수도권의 평균은 2.6년으로 비수도권 1.9년보다 길었다. 일주일 평균 근로 일수는 5.9일이며, 주업의 경우 평균 6.1일, 아르바이트는 5.8일, 부업은 이보다 적은 5.1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주중에는 하루에 9.3시간(주업 9.8시간, 아르바이트 9.5시간, 부업 6.1시간), 주말에는 9.7시간(주업 10.6시간, 아르바이트 9.0시간, 부업 7.5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배달원이 비수도권보다 평균적으로 주중 및 주말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배달 건수는 주중 37.6건, 주말 43.5건으로 평일보다 주말의 배달 건수가 약 6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주중엔 평균적으로 하루에 45.8건, 주말에는 하루에 44.6건을 배달하지만, 비수도권은 이보다 적게 주중에는 하루에 평균 33.6건, 주말에는 하루에 평균 42.9건을 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배달 건수 격차는 주중에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나. 수수료 및 소득

배달대행 배달원은 배달 1건당 배달대행프로그램사에 평균 152원, 배달대행업체에는 평균 247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달대행프로그램의 수수료는 표준화되지 않아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달 일을 하더라도 개별 배달원이 내는 수수료는 달랐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배달대행프로그램사와 배달원 간 연결을 중개하는 배달대행업체보다 플랫폼사인 배달대행프로그램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지역 간 격차가 컸다. 배달대행프로그램에 대한 배달 1건당 수수료는 수도권 평균이 39원인 반면 비수도권 평균은 208원으로 비수도권의 수수료가 약 5배 많았다. 이는 배달대행플랫폼사의 프로그램 사용료가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수수료의 지역 격차는 크지 않으나 비수도권이 다소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배달대행업체 수수료는 266원, 비수도권은 238원으로 비수도권이 약 30원 낮았다. 배달대행 배달원이 배달 1건당 배달대행프로그램사와 배달대행업체에 내는 평균 수수료의 총합은 비수도권이 446원,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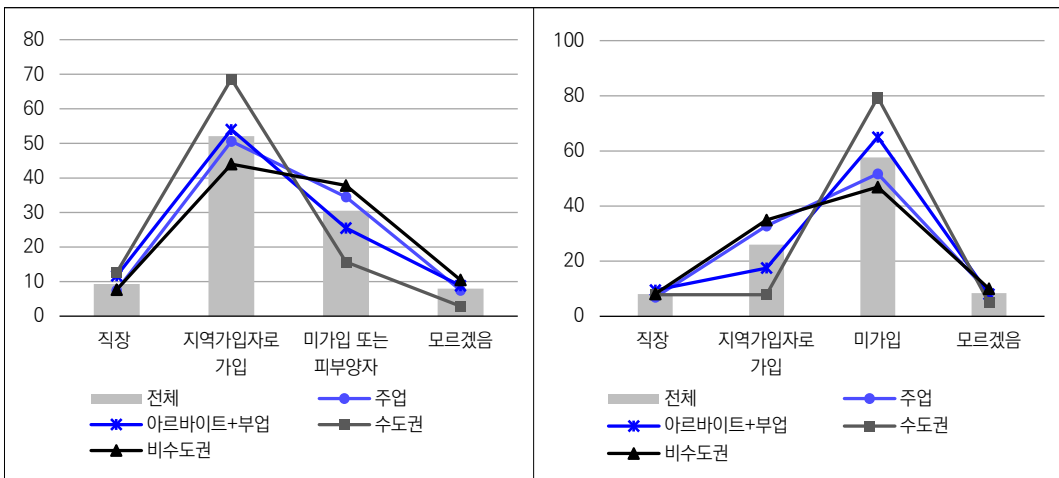
이 305원으로 비수도권이 약 140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배달원이 배달 1건당 받는 배달료는 통상 평균 2,995원이고, 눈비가 올 때, 심야시간 또는 장거리이면 3,282원으로 확인되었다. 기상 악화로 배달이 어렵거나 배달 장소가 멀수록 배달료가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평균 3,205원, 비수도권은 2,893원으로 수도권 배달원이 1건당 받는 배달료가 약 310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대행 배달원이 배달 일을 통해 버는 월평균 실소득은 약 220만 원(수수료, 세금, 보험료 등 제외)으로 조사되었다. 배달 일이 생계를 위한 주업인 경우 평균 23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르바이트인 경우 평균 211만 원, 부업인 경우 160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월평균 실소득은 224만 원으로, 비수도권의 평균 218만 원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다. 사회보험 가입 현황 및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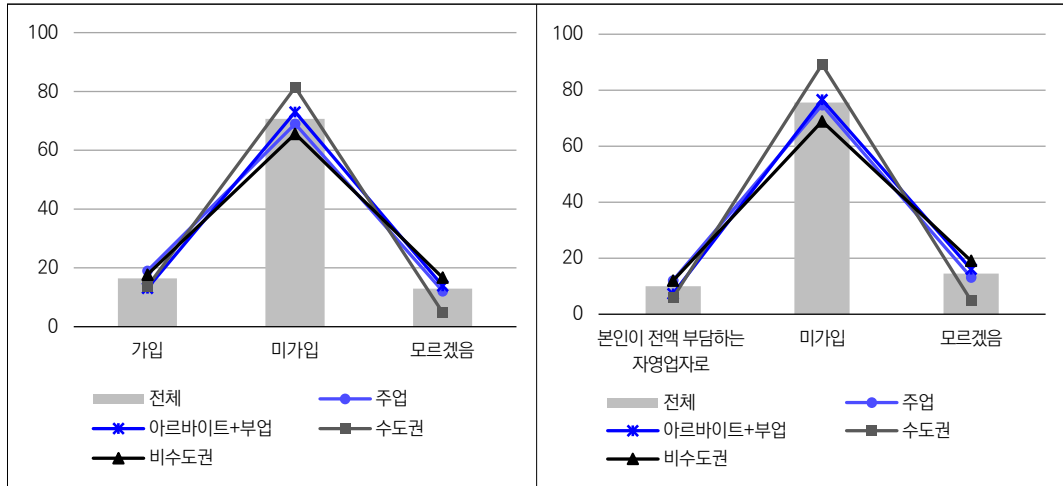
사회보험 가입 현황은 건강보험 가입률이 61.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국민연금 34.0%, 산재보험 16.4%, 그리고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10%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2 참조).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다수가 지역가입자이며, 아르바이트 및 부업일수록, 수도권에서 일할수록 건강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건강보험과 달리 주업일수록, 비수도권에 있는 배달원일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았다. 산재보험도 주업일수록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배달대행 배달 일을 하는 경우에 가입률이 높았다. 고용보험은 주업인 배달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가입한 경우가 아르바이트 및 부업보다 더 높았으며, 비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건강보험(좌) 및 국민연금(우)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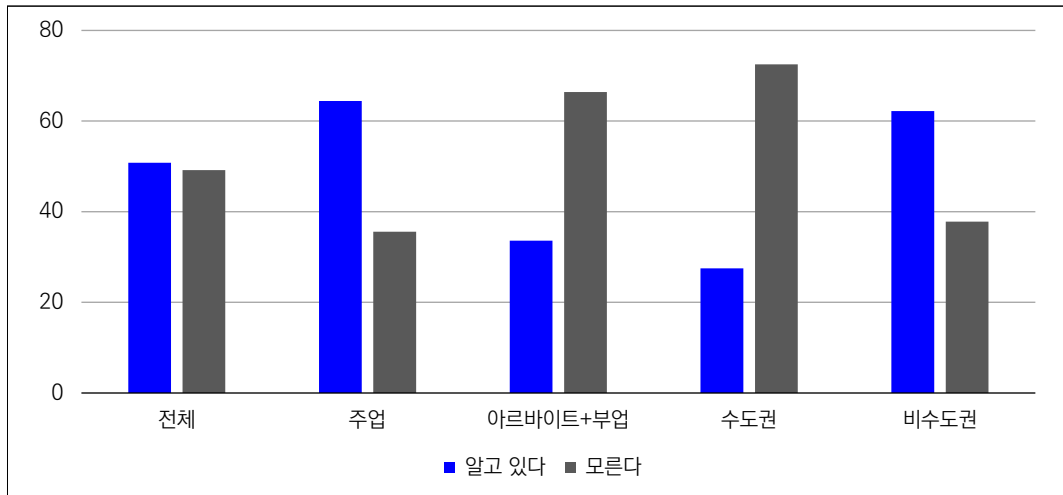


배달대행 배달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자이다.³⁾ 하지만 [그림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조사된 배달원 2명 중 1명만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원의 저조한 산재보험 가입률이 산재보험 당연 적용 자격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배달대행업체는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조항을 근거로 배달원들에게 적용 제외 신청을 권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

[그림 2] 산재보험(좌) 및 고용보험(우)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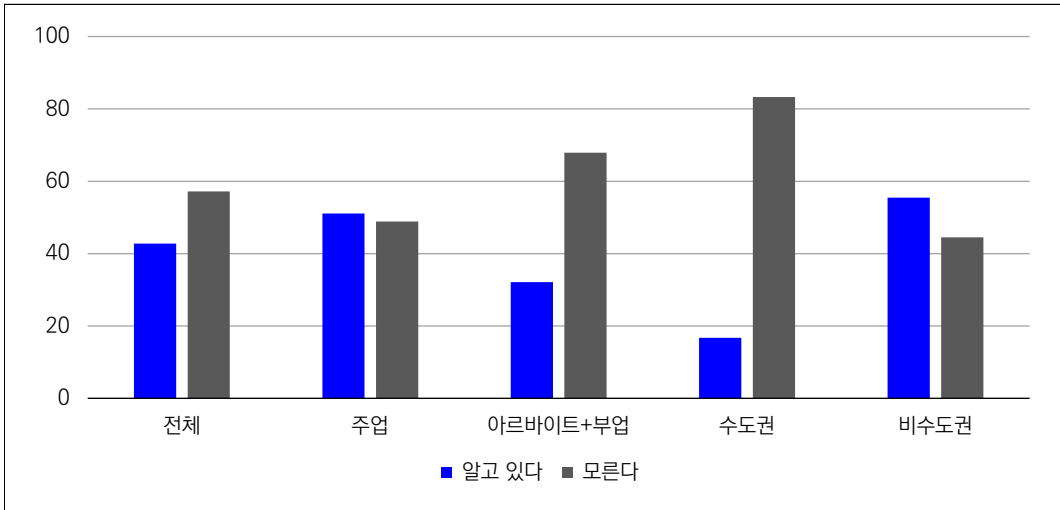


[그림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특례에 따른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 인식 여부



3) 다음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이용하지 않을 것.

[그림 4] 특수형태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임에 대한 인식 여부



졌는데, 이는 저조한 산재보험 가입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주업 배달원의 경우 아르바이트 및 부업 배달원보다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인지를 알고 있는 비율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으며, 비수도권 배달원의 인식 정도가 수도권보다 월등히 높은 편(약 2.5배)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배달대행 배달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배달원은 10명 중 4명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주업 배달원일수록, 비수도권에서 일할수록 이를 인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특히 수도권 배달원의 경우 16.7%만이 인지하고 있어 비수도권의 55.5%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주업 여부와 지역별로 세분화하여도 비수도권 주업 배달원은 74%, 수도권 주업 배달원은 42%가 알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및 부업의 경우에도 비수도권은 46%, 수도권은 12%만 알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배달대행 배달원의 일자리 비전

1. 일자리 만족도

음식 배달대행 배달원의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표 6>에서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32점으로 다소 만족하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주업의 경우 평균 3.45점으로 아르

〈표 6〉 항목별 일자리 만족도

(단위: 점)

		소득 수준	근로 시간	근로 강도	작업 중 안전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	일의 자율성	전반적 만족도
전 체		3.51	3.32	3.10	2.65	3.08	3.01	3.53	3.32
주업 여부	주업	3.71	3.37	3.11	2.67	3.17	3.06	3.60	3.45
	아르바이트 및 부업	3.26	3.26	3.09	2.63	2.96	2.94	3.44	3.15
지역	수도권	3.37	3.28	2.82	2.26	2.95	2.85	3.30	3.12
	비수도권	3.58	3.34	3.24	2.84	3.14	3.09	3.64	3.42

바이트 및 부업의 평균 3.15점보다 높았으며, 수도권 지역의 평균은 3.12점으로 비수도권 3.42점보다 낮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할 때의 자율성’(3.53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득 수준’(3.51점), ‘근로시간’(3.32점), ‘근로 강도’(3.10점) 순으로 높았다. 한편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표는 ‘작업 중 안전’(2.65점)으로 배달 중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직업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르바이트 및 부업 배달원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낮는데, 이는 주업 배달원에 비해 안전 교육 등을 통한 안전성 강화가 더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일자리 비전

배달대행 배달원에게 플랫폼을 이용한 일자리가 생애 주된 일자리인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로 이행하기 전의 징검다리 일자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배달원 개인의 일자리 비전을 확인하였다. 〈표 7〉과 같이 배달대행 배달원 일자리의 기능을 징검다리, 생애 주된 일자리, 경력 도움 일자리 및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하는 일자리로 구분하여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배달대행 일자리는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다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인식이 제일 높았다. 다음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기 전의 징검다리 일자리, 향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일자리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원 일자리를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할 생각이라는 문항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아 배달대행 배달 일자리를 생애 주된 일자리로 보는 인식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배달원은 징검다리 및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항목의 점수가 높은 편이며, 비수도권 배달원은 생애 주된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 되는 일자리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배달대행 배달원 일자리에 대한 인식에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종 학교 졸업 지역을 떠나 현재 지역에서 배달 일을 하는 경우 배달원 일자리 경력이 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 될 것이라는 인식은 지역이동을 겪지 않은 배달

〈표 7〉 현재 배달대행 배달원 일자리의 비전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전 체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징검다리 일자리	100%(N=311)	4.5	14.5	34.7	42.8	3.5	3.26
생애 주된 일자리	100%(N=311)	5.1	31.2	46.6	14.5	2.6	2.78
향후 경력 도움	100%(N=311)	3.5	20.3	42.8	32.5	1.0	3.07
일시적 일자리	100%(N=311)	0.3	2.6	32.8	57.2	7.1	3.68

원보다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⁴⁾

V. 맺음말

2020년 현재 음식 배달대행업을 활용하여 배달 일을 하는 배달원 3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 실태와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계를 위한 주업으로 배달대행 배달 일을 하는 경우는 55.9%로, 아르바이트나 부업인 44.1%보다 높았다. 수도권 배달원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부업의 비중이 높고, 비수도권은 주업의 비중이 높았다. 주업일수록,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배달대행 배달원으로 일한 근속 연수, 평균 근로 일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길 뿐 아니라 평균 배달 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1건당 받는 배달료는 수도권이 더 높았지만, 배달 1건당 배달대행프로그램사와 배달대행업체에 내는 평균 수수료의 총합은 비수도권이 약 140원 더 많았다. 이러한 구조는 수도권 배달원의 월평균 실소득이 비수도권 배달원의 평균 실소득보다 높은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비수도권의 배달대행 배달 일자리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작업 중 안전성, 근로 강도, 일의 자율성 부분의 만족도가 수도권 배달원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편이었다. 한편, 음식 배달대행 배달원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연금, 산재보험 순으로 높았다. 소수지만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업일수록, 비수도권일수록 사회보험에 가입한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비수도권 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배달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배달원의 비중이 수도권보다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의 아르바이트 및 부업 비중이 다소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업 여부별로 세분화하여 봐도, 비수도권

4) 자세한 내용은 김영아 외(2020)의 제5장 참조.

주업, 아르바이트 및 부업 배달원의 인식률이 수도권 배달원보다 월등히 높아 지역별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달대행 배달원 일자리의 기능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배달원은 징검다리 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지만, 비수도권 배달원은 생애 주된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일자리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 간에 배달대행 배달원 일자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달대행 배달원들이 배달 1건당 배달대행프로그램사에 내는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배달대행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배달원일지라도 개별 배달원이 내는 수수료가 다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컸다. 특히 지역에 위치하여 프로그램사와 배달원 사이 연결을 중개하는 배달대행업체보다 플랫폼사인 배달대행프로그램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지역 간 격차가 크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달대행플랫폼사의 사용료가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이에 대한 부담은 배달대행 배달원들이 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특례에 따른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배달대행 배달원 간의 인식 격차가 크다. 비수도권 배달원은 수도권 배달원보다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임을 알고 있는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며, 주업, 아르바이트 및 부업으로 구분하여 봐도 비수도권 배달원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 적용 자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배달대행 배달원 일자리의 비전에 따른 경력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 배달대행 배달원들에게 현재 배달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 또는 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일자리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최종 학교 졸업 지역과 현재 배달원 일을 하는 지역이 같은 경우, 배달대행 배달원 일자리가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라는 인식이 높은 편이었다. 비수도권 배달원들에게 배달대행 배달원 일자리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자리라기보다는 나름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지역 노동시장 및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범위에서 경력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비수도권 배달원의 경우 배달원 일자리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지역의 상권 분석 등 전문적인 창업 교육을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배달원 일자리 이후 임금근로로 이직하기를 희망할 경우, 지역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춰 직업훈련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직업상담·훈련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KL**

[참고문헌]

- 강동우(2018), 「청년층 지역이동의 특징 - 신규 대졸자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5월호, pp. 7~18.
- 김영아 · 이승호(2019),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 김영아 · 고영우 · 방도형(2020), 「배달앱 사용 확산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음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김우영(2014), 「인적자본의 지역간 불평등 : 고령화의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49(5), pp.747~760.
- 김재민(2017),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본 음식배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지역 음식배달 종사자 노동실태조사 토론회 발표자료』, 서울노동권익센터, pp.27~68.
- 김종진 · 박기산 · 안소정 · 윤자호(2015), 『2015년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연구과제.
- 박찬임 · 박제성 · 이승렬(2016),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정흥준 · 남궁준 · 송민주 · 남선우 · 김가람(2019), 『배달업종사자 현황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